

# 새시대에 알맞는 육계산업을 정착시키자



김중설

본회 전북지부 육계분과위원장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는 가뭄으로 안타까움속에  
12월로 접어들어 국내외적으로 민  
족사에 큰 획을 그은 '88년도 이  
제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되  
었다.

우리 육계인들도 국내 육계산업  
수십년이래 최대의 호황으로 조금  
은 주름살이 퍼진 한해였다. 육계  
산업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  
난 한해를 되돌아 보는 것도 뜻있  
는 일일 것이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육계산  
업이 양적으로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판매 및 유통과정은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로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병  
아리의 입추과정에서 출하시까지  
일부 육계상인과 유통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임에  
도 업자간의 상호불신과 단합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간 협조와 단합으로 우리의  
이익을 고양(高揚)시키는 길을 찾  
아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협  
회나 조합 또는 지역계우회를 통  
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켜 밀어닥  
친 외국의 개방압력으로 인한 우  
리의 시장 잠식과 국가정책의 빈  
곤 또는 실정으로 돌아오는 육계  
농가의 피해 기타 상인들의 농간  
이나 횡포 등에 대처해서 단합된  
힘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한가지 방법일 것  
이다. 한데 이렇듯 단합해서 우리  
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터인데 협  
회나 지역계우회 등을 불신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는 마음은  
단합을 저해하고 오히려 우리 스  
스로에 족쇄를 채우는 일로 안타  
깝기짝이 없다 하겠다.

불어닥친 민주화의 열기에 발맞

**호황으로 얻은 이익을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여  
안정된 기반을  
굳혀 나가자**

추어 다른 업계에서는 동업자조합이다, 노동조합이다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찾고 있으며 같은 양계업계내에서도 부화업계나 채란업계는 이미 조직된 힘으로 동업자의 이익을 위해 뛰기 시작했음을 주지할 일이며, 더불어 우리 육계업자가 나아가길은 육계 소비패턴의 다양화, 즉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요리 및 식품개발에 유관단체나 협회의 홍보에 적극 호응하여 닭고기 소비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일례로 미국, 이스라엘같은 나라에서는 1인당 닭고기의 연간 소비량이 30kg 이상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87년 3.3kg에 불과한 실정이다. '88 올림픽때 닭고기는 쇠고기 100톤 돼지고기 80톤에 앞서 130톤을 소비한 것만 봐도 세계적인 닭고기의 소비패턴을 알 수 있다.

또하나 낙후된 생산시설로써는 좋은 상품과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종업원의 급여문제와 구인난의 심각성 등으로 미루어 육계산업은 자동화시설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과학적인 사양

관리만이 상품의 질을 높임과 아울러 경제적인 경영의 긴 호흡으로 작년의 불황을 잠시 잊은듯 입추월기가 되살아나는 듯하나, 작년에 상당수의 부화장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수많은 육계업자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안고 시달렸던가.

금년 호황으로 작년의 적자폭을 메우고 재기의 자금을 마련한 사람들이여! 호황에서 얻은 이익을 새로운 설비에 재투자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림으로써 안정된 기반을 굳혀 나가신의 이익과 육계산업의 앞길을 다져나가야 하겠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닭고기 소비량은 아무런 노력없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겠고, 지난 2월에 있었던 양계인대회에서 거론된 자조금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입법추진해서 제도화하여 우리 양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양계산업 합리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홍보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양계농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1월11일 가진 닭고기요리 솜씨 대회에 참가한 63명을 제외한 상당수가 서류심사과정에서 탈락하고만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갈수록 주부(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껍이나 고무적인 일

이다. 또, 대회장 입구에서의 모회사들에서 만든 닭고기 상품을 시식해보니 상당히 맛이 좋던데 이를 구전(口傳)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더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유관단체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다. 또 한가지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소매상의 비위생적인 판매문제도 신뢰받는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계기관의 협조와 상인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지난 10월 13일 전국 육계인대회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말고 금년의 호황이 앞날의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밑받침이 되도록 할 것이며 협회나 조합 등에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육계업자간의 굳건한 유대를 기대한다.

이상에 언급한 내용은 수차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제기된 문제이지만 한해를 보내면서 각계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적한 것으로, 지난 날에 대한 예리한 자기 성찰만이 내일을 위한 기쁜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믿고 우리 육계인과 양계 산업 가족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양계**